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Working Married Women's Perceptions of Family Values and Work-Life Balance and
their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Give Birth to their First Child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학전공

석사 심혜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정윤***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Master Sim, Hyeyoung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oung Yun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저출산 정책대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출산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375명의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첫 자녀 출산의향의 확실성 정도가 중간이었으며, 가족가치관 중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가치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고 성역할가치관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생활 균형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고 하위영역 중 일과 가정, 일과 성장의 균형 인식이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보다 높았다. 둘째,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연령, 주거형태,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 영역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혼 취업여성,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 출산의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s of employed married women, aged 19 and above, with no prior experience of childbirth, to give birth to their first child.

First, the intention of employed married women to give birth to their first child showed a moderate level of inclination, with slightly higher scores reflected in the subvariables of perceived marital value and perceived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심혜영(shy0206@naver.com), <https://orcid.org/0009-0000-6044-0401>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s://orcid.org/0000-0002-0755-9697>

child value both within family values, while the effect of perceived gender role value was generally higher than the midpoint. Perception of work-life balance was generally a moderate influence, with the subvariabl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being slightly higher than the midpoint in terms of influence. Second, the intention to give birth to a first child wa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ducation an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However, this inten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e, perceived child values, perceived marital values, and residential tenure. Third, pregnancy intention was influenced by age, educational level, perceived value of children, perceived value of marriage, and work-life balance.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assistance in understanding current low birth rate by gathering data on the preferences of married working women in relation to childbirth and by presenting the diverse perspectives of the women.

Key words: Married employed women, family values, work-life balance, pregnancy intention

I. 서론

현대사회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였다(남예지·장유나·홍세희, 2019).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고정관념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과중은 여성에게 두 영역의 양립을 어렵게 하여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조화 및 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을 양립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었다(송혜림·강은주, 2021).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태도,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인식 변화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 의미에 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한국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인식 변화로 인한 저출산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교육수준 상승, 만혼화 현상,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홍성희, 2020).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높여 출산율을 낮춘다는 주장이 생겨났고, 기혼 취업여성들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과중으로 인해 직장가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 저출산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경제적 안정성을 높게 가질 수록 출산의향에 긍정적 태도를 지녀(오민지, 2020), 기혼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감소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선진국에서 부정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향 간의 영향력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출산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별과 결혼 및 취업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출산의향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했는데 크게 정책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가족가치관(김소이, 2018; 이완, 2018), 결혼 만족도(남국현, 2022; 정아름, 2021)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출산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시적 차원에서 출산을 제고와 관련한 연구가 많았고(오민지, 2020), 미시적 체계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거시적 체계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함께 다룬 연구들도 진행되었으나, 제한된 변인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의향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 거시체계 가운데 가치관이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장희연, 2016). 가족가치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가치관은 미혼남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임병인·서혜림, 2021; 임재연, 2021; 정아름, 2021). 가족가치관의 하위변인 중 성역할가치관은 출산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상황을 인식하고, 거시체계 변인인 가족가치관과 미시체계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롯하여 더 폭 넓은 중간체계 영역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은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 고용정보원, 2022).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직과 연관되어 연구되어왔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해 일·생활 균형 인식이 출산의향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균형과 출산의향을 함께 다루었다고 하여도 대부분 일과 가정에 관한 연구들이 대다수로 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연구한 초창기 연구들은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으로 국한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이예운·이승미·박경순, 2023).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고, 가정 외 다른 영역은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어 가정 중심에서 벗어나 확장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2018년 이후로 합계출산율 0.98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1명 미만이라는 출산율이 나타나게 되었고(통계청, 2020), 2023년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나타냈다(통계청, 2024). 가임여성 1명 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면서 정책적으로 첫 자녀 혜택이 생기는 추세이기는 하나, 연구에서조차 대부분 후속출산 및 둘째자녀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들로 첫 자녀 출산의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을 일과 생활의 균형 관점을 포함하여 다루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혼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인식이 조화로운 때 첫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생활 균형, 저출산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자원경영학이 주목하는 연구주제들과 가족가치관 등을 연결시켜 보다 다각적으로 자녀가 없는 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알아보고, 가족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으로 대상을 좁혀 첫 자녀 출산의향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첫 자녀 출산의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개인의 가치관에 주목하여 가족가치관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이라는 중간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 연령, 경제적 측면에 맞는 첫 자녀 출산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대안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출산의향에 대한 선행연구

출산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 현대사회 청년들은 출산을 필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감소하였고, 희생과 손해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아실현과 직업 유지의 선택 욕구가 증가해(오민지, 2020) 출산이 선택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함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출산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소영(2018)은 출산의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이 출산의향, 출산의지, 출산의도 등으로 미래 출산 가능성과 의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고, 우혜봉과 장인수(2019)는 출산 관련 연구에서 출산의향이 자존 의의되었으며, 출산의향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하고 출산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실제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출산의향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인구사회학, 경제, 가족 관련 그리고 정책 관련 변인들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조아라, 2018). 출산정책, 가치관,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결혼만족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으로 논의되어왔다(강하라, 2021; 남국현, 2022; 오민지, 2020; 정아름, 2021). 연구 대상으로는 기혼남녀, 맞벌이 부부, 미혼남녀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고, 기혼여성에 대한 연구(조아라, 2018; 함진모; 2021, 홍성희, 202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출산의향은 다양한 대상을 통해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가까운 미래의 출산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미혼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출산 정책에 중요한 대상자와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 개인의 삶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가장장적인 문화에 따라 여전히 직장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고(남국현, 2022), 결혼 후 출산이 이뤄지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정아름, 2021), 출산이행 확률이 높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등 직업 관련 변인과 출산의향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90년대 이후 맞벌이 가구의 증대는 일·가족 양립 문제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만족도, 가족친화제도 등과 출산의향은 정적 및 부적관계의 결과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변화는 출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eets, 1997). 하지만 대부분이 출산과 일·가정 양립 또는 일·가정 갈등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의 전반적인 삶과 생활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출산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가치관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여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오민지, 2020). 기혼 취업여성이 개인의 삶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일과 가정을 포함한 성장 및 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균형 인식이 출산의향과 관련성이 있는 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지금까지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는 후속 자녀 출산의향이나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첫 자녀 출산의향을 다룬 연구는 미미하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혼 취업여성의 가치관과 삶은 출산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변인들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출산의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영향 변인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소득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연령에 따른 출산의향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오민지, 2020; 한영선·이연숙, 2014)에서 부모 또는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낮다고 밝혀지고 있다. 반면,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더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한영선·이연숙, 2014)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활동이나 소득에 따라 출산의향의 정도는 다르다. 월 평균소득이 높거나 경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에 긍정적이면서(오민지, 2020; 홍성희, 2021), 동시에 가구 소득이 높거나 경제활동을 할수록 출산의향이 낮아지기도 한다(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

2) 가족가치관

출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 가치관은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석호, 2022; 이윤석·김필숙·심규선, 2016). 심리 및 가치관 요인은 최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정아름, 2021), 가족가치관은 출산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어왔다.

개인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

을 가진 경우, 자녀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성 역할 인식이 보수적일수록 출산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세창, 2019; 김양은·하지영, 2016). 출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가치관 중 출산의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심리학적 변인인 세 하위요소의 가치관을 다루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일·생활 균형 인식

그동안 일과 생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두 영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한 연구가 대다수였다(Shumate & Fulk, 2004). 하지만 최근 들어 일과 생활 간 갈등·조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두 영역 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이예운 외, 2023).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일·생활 균형의 영역을 세 영역으로 분류하면,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그리고 일-성장 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생활 균형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은 맞벌이 부부가 많았고, 부부의 근로시간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인식하는 것을 연구하였다(권소영, 2019; 한지수, 2018). 대부분 직업관련 변인과 함께 다루어졌고,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의 하위영역 중 일-가정 영역은 갈등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일과 가정 역할에서 불평등함을 느껴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녀출산이 감소되었고(선민정, 2019), 부부친밀감이 높고 일과 가정 병행에 어려움을 덜 느낄수록 양육을 수월하게 느껴 자녀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숙, 2022; 선민정, 2019).

일-여가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여가의 균형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김보람·김매이, 2020; 이국희·최인철, 2018). 일-성장 균형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영역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성장과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한지수, 2018), 여성의 다양한 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신민영, 2020). 성장 요인이 여성의 삶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에도 근로상태를 유지시키며, 자녀가 있을 경우 심리적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하여(박정열 외, 2016)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혼 취업여성들은 일-가정 갈등과 연관성이 높은 연구대상으로 일-가정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일·생활 균형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출산의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가정 갈등은 출산과 관련되어 다수 연구되었지만 일·생활 균형과 관련지는 연구

는 미미하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여가 및 자기개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이해할 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가정을 포함한 여성의 여가 및 성장의 영역으로 확대한 생활의 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 첫 자녀 출산의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으로서, 결혼 후 출산이 가능한 여성(가임기)으로 한정하였다. 무자녀 기혼여성으로 한정된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비율이 증가하였고, 본 연구가 기혼 취업여성의 일·생활 균형 인식을 토대로 첫 자녀 출산의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취업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 생명윤리 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설문이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3일 까지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시작 전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글을 읽고 연구자료 활용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총 375명의 설문지가 온라인상에서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35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구성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7문항으로 연령, 종교, 주거점유형태, 학력, 소득, 직업유형, 근무형태 수준을 포함하였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 척도 중 결혼가치관은 남주희(2007)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사용한 결혼에 대한 태도 문항과 남예지 외(2019)가 여성가족패널 자료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가치관 척도는 백주희(2009)가 ISSP와 KGSS에서 사용한 문항과 남주희(2007)가 KGSS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이보라(2018), 이순희(2016), 백나영(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전국 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자녀가치관에 대한 척도를 강세창(2019)이 연구에 맞게 수정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결혼가치관 7문항, 성역할가치관 4문항, 자녀가치관 11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가치관은 5점 Likert 척도로 통계 분석 시 전체 문항 값을 역코딩하여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녀의 역할을 일과 가정으로 나누어 인식하지 않으며, 자녀의 필요성과 가치를 낮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결혼가치관의 Cronbach's α 값 .713, 성역할가치관의 Cronbach's α 값 .728, 자녀가치관의 Cronbach's α 값 .727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의 Cronbach's α 값 .832로 나타났다.

3) 일·생활 균형 인식

일·생활 균형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정(2016)이 김정운 외(2005)와 김정운과 박정열(2008)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 5문항, 일과 여가의 균형 5문항, 일과 성장의 균형 6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이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생활 균형 인식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간의 균형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통계 분석시 문항 값을 역코딩하여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일 이외의 영역'이 조화롭고 균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일·생활 균형 인식 전체 Cronbach's α 값 .895, 일과 가정의 균형의 Cronbach's α 값 .792, 일과 여가의 균형 Cronbach's α 값 .804, 일과 성장의 균형 Cronbach's α 값 .868로 나타났다.

4) 출산의향

출산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원(2007)의 후속 출산의도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개의 문항으로 출산의향의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계획성이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 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인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 첫 자녀 출산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전반적 경향성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첫 자녀 출산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첫 자녀 출산의향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에 근거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들을 선정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30세 이상~34세 이하' 161명(45.1%)이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초대졸 포함)'이 252명(70.6%), 종교는 '무교'가 214명(59.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유형은 '사무직'이 210명(58.8%)로 가장 많았고, 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가 311명(8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604.79만원(SD=446.298)이었으며, '500만원 이상~599만원 이하' 73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점유형태는 '전세'가 162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n	%
연령	29세 이하	31	8.4
	30세 이상 ~ 34세 이하	161	45.1
	35세 이상 ~ 39세 이하	89	24.9
	40세 이상	76	21.3
종교	기독교	72	20.2
	천주교	37	10.4
	불교	33	9.2
	무교	214	59.9
	기타	1	.3
주거점유형태	자가	138	38.7
	전세	162	45.4
	월세 또는 기타	57	16.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0	5.6
	대학 졸업(초대졸 포함)	252	70.6
	대학원 이상	85	23.8
월 평균 가구소득 (평균 604.79만원) (SD=446.298)	199만원 이하	3	.8
	200만원 이상 ~ 299만원 이하	24	6.7
	300만원 이상 ~ 399만원 이하	33	9.2
	400만원 이상 ~ 499만원 이하	51	14.3
	500만원 이상 ~ 599만원 이하	73	20.4
	600만원 이상 ~ 699만원 이하	68	19.0
	700만원 이상 ~ 799만원 이하	42	11.8
	800만원 이상 ~ 899만원 이하	26	7.3
	900만원 이상 ~ 999만원 이하	14	3.9
직업 유형	1,000만원 이상	23	6.4
	관리직	34	9.5
	전문직	66	18.5
	사무직	210	58.8
	서비스직	35	9.8
근무형태	판매직	12	3.4
	전일제 근무	311	87.1
	시간제 근무	46	12.9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기혼 취업여성의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그리고 첨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인들의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 중 1.36~4.68점, 일·생활 균형 인식은 7점 만점 중 1.25~6.88점, 첫 자녀 출산의향은 5점 만점 중 1.00~5.00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왜도 (-1.001~.275), 첨도(-1.447~1.927)값이 정상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5점에서 3.58점으로 중간 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보다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결혼가치관'은 3.64점, '자녀가치관'은 3.34점으로 중간 값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해 자신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가치관'은 4.13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취업여성들이 남편의 역할을 일과 가정으로 구분하지 않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일과 가정 각 영역에서의 남녀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자녀 출산에 대한 선호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며, 특히 성역할에 대해 평등적 사고를 지닌 경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재연(2021)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이 10년 동안 근대적으로 변화한 연구결과와 임병인과 서혜림(2021)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이 개방적으로 변한 결과와 유사하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예측

해 볼 수 있다. 현대 기혼 취업여성은 가족생활주기 중 부부체계를 형성하는 결혼적용기이며, 가족체계 변화와 함께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성의 가치관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인식 경향성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19점으로 중간 값인 4점에 근접하게 나타나 일과 생활 전반의 부분을 균형적이고 조화롭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4.42점, '일과 여가의 균형'은 3.94점, '일과 성장의 균형'은 4.19점으로 중간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은 약간 조화롭게 인식하고, 일과 여가 및 성장의 균형의 조화로운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일·생활 균형 인식의 수준은 전반적 균형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신민영(2020), 곽상은(2021)과 맥을 같이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2.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첫 자녀 출산의향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자녀 출산의향과 정적상관이 있는 변인은 최종학력($r=.104, p<.05$)이고, 부적상관이 있는 변인은 연령($r=-.386, p<.01$), 자녀가치관($r=-.368, p<.05$), 결혼가치관($r=-.266, p<.05$), 주거점유형태($r=-.140, p<.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에 대한 정도가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외 집단인 경우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았다.

학력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이행이 크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선민정 2019; 오민지, 2020)과 유사하고, 일부 선행연구들(계봉오·김영미, 2016;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n=357)

변인	하위변인	M(SD)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가족 가치관	결혼가치관	3.64(.58)	1.57	5.00	-.202	.502
	성역할가치관	4.13(.67)	1.00	5.00	-1.001	1.927
	자녀가치관	3.34(.55)	1.36	4.73	-.266	.532
	전체	3.58(.47)	1.36	4.68	-.707	1.639
일·생활 균형 인식	일과 가정의 균형	4.42(1.13)	1.00	7.00	.113	.019
	일과 여가의 균형	3.94(1.27)	1.00	7.00	.268	-.276
	일과 성장의 균형	4.19(1.20)	1.00	7.00	.275	-.117
	전체	4.19(.99)	1.25	6.88	.159	-.199
출산의향	전체	3.18(1.54)	1.00	5.00	-.266	-1.447

이춘화, 2018)과는 상반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학력수준은 안정적 직업이나 경제력과 같은 자녀출산 및 양육에서 요구하는 가족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출산의향의 가능성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연령은 결혼 시기와 결혼 후 출산하는 시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여성의 연령과 출산의향 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이완, 2018; 조아라, 2018)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인 연령과 건강이 관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생물학적 연령이 출산에 직간접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외 점유형태 집단에서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송헌재 외, 2022; 홍수아·손서희·최자혜, 2023)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자가 소유는 결혼생활 안정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가 안정의 부재는 자녀출산 기피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가 외 집단의 출산의향이 높은 것은 첫 자녀 출산이라는 점과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가치관의 보수적인 측면들이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기혼여성들이 자녀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첫 자녀 출산은 현재 가족생활을 건강하고 원만하다고 지각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을 것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태도나 출산의향이 주거안정성과 같은 물질적 가족자원보다는 비물질적 자원들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참조). 명목변수는 다미화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환하였고, 연속 변인의 경우 그대로 사용하였다.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Model I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Model II에는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인 결혼가치관, 성역할가치관, 자녀가치관을 투입하였다. Model III에는 일·생활 균형 인식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0이상이고 모든 분산팽창계수는 1.052~2.219로 정상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53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I의 전체 설명력은 16.1%였으며, 연령, 최종학력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혼 취업여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이 포함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Model I에 가족가치관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9.9%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가치관, 결혼가치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고, 자녀가치관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이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증시하는 가치관일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Model III은 일·생활 균형 인식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Model III에서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연령, 자녀가치관, 최종학력, 결혼가치관, 일과 가정의 균형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을 긍정적이고 필수적으로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혼 취업여성의 연령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자녀가치관도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개인의 삶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중요시할수록, 일과 가정의 영역의 갈등을 적게 느끼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가치관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강세창, 2019; 임계연, 2021). 이는 출산과 양육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일어나고, 그 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인식할 경우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가정 내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결혼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선민정·조상미, 2019),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출산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손지현, 2019)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이 높고 직장에서 성차별 문화를 겪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선민정, 2019; 최지훈, 2017)와 연계해 볼 때 일과 가정이 불균형할수록 출산의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n=357)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t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변인	연령	-.399	-7.791***	-.342	-6.976***	-.348	-7.079***
	종교 ¹⁾	.042	.835	.000	.006	.004	.080
	주거점유형태 ²⁾	-.023	-.439	.020	.418	.018	.363
	최종학력	.125	2.328**	.143	2.833**	.153	2.850**
	월평균 가구소득	-.004	-.074	-.017	-.356	-.020	-.420
	직업유형 ³⁾	-.005	-.085	.016	.320	.016	.318
	근무형태 ⁴⁾	-.066	-1.323	-.062	-1.288	-.057	-1.178
가족 가치관	결혼가치관			-.144	-2.547*	-.136	-2.399*
	성역할가치관			.104	1.949	.093	1.673
	자녀가치관			-.269	-4.705***	-.277	-4.790***
일·생활 균형인식	일-가정 ⁵⁾					.120	1.987*
	일-여가 ⁶⁾					-.041	-.610
	일-성장 ⁷⁾					-.030	-.517
상수		5.035		7.460		7.172	
R ²		.177		.281		.290	
adj R ²		.161		.260		.263	
Δ R ²		.177		.104			
F		10.743***		13.540***		10.770***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종교: 무=0, 유=1, 2) 주거점유형태: 무=0, 유=1, 3) 직업유형: 전문직/관리직=0, 그 외=1, 4) 근무형태: 시간제=0, 전일제=1
 5) 일-가정: 일과 가정의 균형, 6) 일-여가: 일과 여가의 균형, 7) 일-성장: 일과 성장의 균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가족가치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비전통적으로 변화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인식의 수준은 기존 연구들과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욱 조화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수준이 높

고 연령이 낮을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았으며, 자가 외 주거점유형태를 가지는 경우, 자녀 및 결혼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학력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학력수준이 안정적인 직업과 연계되며, 가족자원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출산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원의 학력이 가족자원으로써 출산의향에 직접적 영향력이기보다는 다른 가족자원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추후연구에서 관련 자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여성의 연령이 출산의향과 관련한 자원이 되고 있음도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며,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의 연령과 출산의향 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이라는 가족원 개인 자원과 출산에 대한 고려가 관련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 없어 추후연구에서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외 점유형태 집단의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자가소유가 결혼 및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그 외 가치관 등

비물질적 자원들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원 간 중요성이나 영향력의 비교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의향을 이해하기 위해 기혼 취업여성의 학력수준, 연령 그리고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할 경우 단순히 초혼 연령의 출산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변화된 가치관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로 다양화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려되고, 교육수준과 경제적 안정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고찰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녀가치관, 결혼가치관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치관 영향력의 경우, 결혼제도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결혼 및 자녀가치관이 출산의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인식의 하위변인 중 일과 가정의 균형 인식만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출산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어려워진다면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족친화적 다양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친화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역할 불균형이 지속되어 두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영역 침범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어 소진되기 마련이며, 신체 및 심리적 소진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녀출산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어려움이 과증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통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친화제도가 출산의향에 긍정적이지만(선민정·조상미, 2019),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임신출산 관련 단축근무와 휴직 사용에도 여전히 직장 내에 가까운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고용노동부, 2022), 출산을 하더라도 일과 삶이 균형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사회 및 직장 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일·생활 균형 인식이 첫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주화된 연구대상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과 학문과 정책 활용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의향을 살펴본 연구와는 다른 시사점과 의의를 보여주었고, 함의점을 도

출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일·생활의 균형 인식으로만 측정했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추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가와 성장 변인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인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등 가족자원경영학 맥락에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의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구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연속변수는 아니지만 점진적 증가를 나타내기 위해 연속변수로 취급한 부분이 있어 결과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출산의향 연구들의 대상의 명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함에 있어 자녀가 없는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대상을 좁혀 연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요인과 생활의 균형을 세분화하여 관련성 다루어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출산의향이 대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자료를 기초하여 맞춤형 사업 및 제도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정부가 가족정책 수립과 지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강하라(2021).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과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 및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25-39. DOI : 10.22626/jkfrma.2021.25.2.003.
- 3) 계봉오·김영미(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고용노동부(2022).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5) 광상은(2021). 청년세대의 자아실현적 일의 의미와 일과 삶의 균형 간의 관계: 긍정 정서와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권소영(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보람·김매이(2020). 청소년들의 학업과 여가의 균형에 따른 여가시간, 여가 비용 및 행복수준. 여가학연구, 18(3), 41-61.
- 8) 김미정(2016). 기업구성원의 일-생활의 균형이 사회적지지, 정서적 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대산업 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김석호(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한국조사연구학회, 23(2), 1-33.
- 10) 김소이(2018). 기혼자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관계 특성 및 출산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김양은·하지영(2016). 여대생들의 출산 및 양육, 자녀가 치관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에 관한 이해.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21-140.
- 12) 김정운·박정열(2008).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3), 53-69.
- 13) 김정운·박정열·손영미·장훈(2005). '일과 삶의 조화 (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 연구, 2(3), 29-48.
- 14) 김태숙(2022).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친밀감과 성평등의식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중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16), 487-504.
- 15) 남국현(2022).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출산계획, 직무만 족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1), 166-182.
- 16) 남예지·장유나·홍세희(2019).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 과 부부친밀감의 종단적 변화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이중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여성연구, 100(1), 5-34.
- 17) 남주희(2007).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동 거성역할자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18) 박소영(2018). 한국 직장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연구: 노동 및 젠더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 박정열·전은선·손영미·신규리(2016). 이과 삶의 균형 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여가문화학회, 14(4), 1-22.
- 20) 백나영(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와의 관계연구: 개 인 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21) 백주희(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국제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39-251.
- 22) 선민정(2019). 기혼 취업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관한 혼합연구: 일·가정 양립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선민정·조상미(2019).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관련 요 인이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성차별 문 화에 대한 일·가정 양립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 회과학연구논총, 35(2), 5-35.
- 24) 손지현(2019).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송혜림·강은주(2021).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DOI : 10.22626/jkfrma.2021.25.4.005.
- 26) 송헌재·윤다정·이수성·조하영(2022). 결혼관과 자녀 관을 통해 바라본 청년층의 현실 인식. 한국자료분석학회, 24(1), 229-239.
- 27) 신민영(2020).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일과 삶의 균형과 출 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8) 신혜원·최명섭·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 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연구원, 10(2), 33-47.
- 29) 오민지(2020).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우해봉·장인수(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 31) 이국희·최인철(2018). 일하고 놀까? 놀고 일할까?: 행복, 관계 그리고 여가 우선 선택. 여가학연구, 16(1), 29-53.
- 32) 이보라(2018).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 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3) 이완(2018).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 계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 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4) 이윤석·김필숙·심규선(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 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130.
- 35) 이예운·이승미·박경순(2023). 일·가정 양립의 최근 동향 연구: 국내 가족과 관련된 학회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 과 정책, 27(2), 63-77. DOI : 10.22626/jkfrma.2023.27.2.005.
- 36) 이순희(2016).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광 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7)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 출산 의도 결정 경 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323-352.
- 38) 이춘화(2018).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장유형과 근무형태에 따른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9) 임병인·서혜림(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 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 40) 임재연(2021).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

- 구학회, 44(4), 47-74.
- 41) 장유나·남예지·홍세희(2019). 기혼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직장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계층분류 및 영향 요인 검증: 이중 변화형태 모형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연구, 22(1), 1-35.
- 42) 장희연(201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탐색. 한국융합인문학, 4(1), 73-95.
- 43) 조아라(2018).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정아름(2021).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의 병렬다중매개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5) 최지훈(2017). 가족친화제도가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6) 통계청(2020).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47) 통계청(2024).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48) 한국고용정보원(2022).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 순위.
- 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0) 한영선·이영숙(2014).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8(2), 163-182.
- 51) 한지수(2018). 남·녀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균형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2) 함진모(2021).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결혼가치관, 가정관, 자녀관이 미혼남녀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53) 홍수아·손서희·최자혜(2023). 20대와 30대 비혼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능성 관련 요인. 대한가정학회, 61(2), 183-194.
- 54) 홍성희(2020). 남녀의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과 계획 자녀수의 영향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2), 69-87. DOI : 10.22626/jkfma.2020.24.2.004.
- 55) 홍성희(202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41-52. DOI : 10.22626/jkfma.2021.25.2.004.
- 56) Beets, Gijs(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17 October, Beijing.
- 57) Shumate, M. & Fulk, J.(2004). Boundaries and role conflict when work and family are collocated: A communication network and symbolic interaction approach. Human Relations, 57(1), 55-74.

■ 투 고 일 : 2024년 03월 13일
■ 심 사 일 : 2024년 04월 02일
■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05월 15일

부 록

〈부록〉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n=3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69	1												
3	.275**	-.002	1											
4	.106*	-.247**	-.080	1										
5	.053	.065	.057	.037	1									
6	-.056	.172**	-.017	-.364**	-.049	1								
7	.036	-.078	.038	.141**	.071	-.170**	1							
8	.058	.111*	.016	.000	-.027	.048	-.057	1						
9	-.043	.006	-.035	.073	.027	-.027	-.229**	.411**	1					
10	.193**	.069	.182**	.043	-.001	.030	-.075	.532**	.370**	1				
11	.054	.044	.064	-.007	.028	-.039	.013	.067	.233**	.186**	1			
12	.001	.081	.019	-.050	.042	-.025	-.009	.092	.300**	.217**	.644**	1		
13	-.030	-.090	.004	.296**	.048	-.191**	.043	.076	.211**	.125*	.416**	.508**	1	
14	-.386**	-.077	-.140**	.104*	.023	-.045	.074	-.266**	-.047	-.368**	.022	-.035	.027	1

** $p < .05$, * $p < .01$

1) 연령, 2) 종교: 무=0, 유=1, 3) 주거점유형태: 자가 외=0, 자가 외=1, 4) 최종학력, 5) 월평균 가구소득, 6) 직업유형: 전문직/관리직=0, 그 외=1, 7) 근무형태: 시간제=0, 전일제=1, 8) 결혼가치관, 9) 성역할가치관, 10) 자녀가치관, 11) 일과 가정의 균형, 12) 일과 여가의 균형, 13) 일과 생활의 균형, 14) 첫 자녀 출산의향